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목록

87년 10~12월분

중국 철학 이야기

주 채, 윈버그 채 저 / 편집부 역

巨岩 / A5신 / 240면 / 2500원

일반독자들이 읽기 쉽게 꾸민 중국 철학의 입문서.

요즘 동양철학이 서양에서 연구·비판되는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어, 이에 부응해 주 채와 윈버그 채가 쓴 「The Story of Chinese Philosophy」를 번역했다.

공자, 노자, 맹자, 정자 등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사상이 8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생애와 사상 및 사회적 배경과 영향력을 다룬 이 책은 중국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푸른 하늘 저편

이진식 작

청목 / B6 / 254면 / 1500원

기쁨과 슬픔을 가득 안은 주니어들이 그리워하는 푸른 하늘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평온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구김없이 자라난 민규에게 불어닥친 출생의 비밀에 대한 회오리바람.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의 뜨거운 애정과 자신의 끈끈한 의지력으로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여 보람찬 내일의 태양을 기억한다.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꿈으로 용해시켜 건강하고 밝게 미래의 세계를 설계하고 펼쳐나가는 삶을 보여주는 책이다. Green Books 99.

겨울 결혼식

이오시프 브로드스키 작 / 김학수 역

정음사 / B6변형 / 116면 / 2000원

소련의 망명작가이자 1987년도 노벨문학

상 수상작가인 브로드스키의 대표시선집.

제1부 「황야의 정거장」 제2부 「아름다운 시대의 종말」 제3부 「연설의 한 부분」으로 나누어, 신성함에 대한 갈망, 자기완성에의 추구자세가 전편에 배어 있는 그의 시 32편을 수록했다. 다소 난해하고 추상적이거나, 시어의 명징성과 내용의 질은 서정성이 독자에게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역자는 고려대 노어노문학과의 교수.

우수의 거리에서

유종호 저

한길사 / B6변형 / 238면 / 2200원

어렵고 외로우나,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위안이 되도록 꾸민 수상집. 유종호교수(이대 영문학)가 그동안 썼던 짙막한 수상들을 엮었다.

“까다로운 세상에서 쉽게 찌어진 이삭글을 모으면서 진정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지만, 최선의 목소리로 내놓은 그의 글들 속에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낙타와 바늘귀」 「저들을 위해 개탄한다」 「힘에서 설득으로」 등 30여편의 글 수록.

이상

金容稷 편저

지학사 / A5신 / 266면 / 2800원

특이한 문학형태로 예술의 영역을 넓힌李箱의 대표작품과 해설 및 평전을 묶은 책.

우리에게 항상 물음표를 던져주는 작가 이상은 파격적인 언어구사와 새로운 형태의 문

장구조로 문학의 양식이 갖는 데두리 내지 경계성을 허물고자 했다.

이 책은 「날개」 「失花」 「地圖의 暗室」 등의 대표소설 10편, 「鳥瞰圖」 「正式」 등 시 4편을 수록했다. 또 「까다로운 작품들의 바로 읽기」(金容稷) 등의 작품해설과 작가평전, 연구자료를 함께 실어 이상과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작

문학과지성사 / A5신 / 290면 / 3500원

한국인의 평균적인 일상의 삶을 우수어린 정다운 모습으로 그려낸 연작소설집. 월간 「문학사상」 신인상에 「다시 시작하는 아침」 등이 당선, 문단에 데뷔한 양귀자씨의 두번째 창작집이다.

‘기어이 또하나의 희망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할 우리들의 동네’ 부천시 원미동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살고 있는 몇몇 인물들이 펼쳐보이는 작은 삶들 속에 한 시대의 삶의 명암들을 압축시키고 있다. 「멀고 아름다운 동네」 「원미동 시인」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등 11편을 수록했다.

中國의 古代神話

袁珂 저 / 鄭錫元 역

문예출판사 / A5신 / 378면 / 4000원

중국신화가 지니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민족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엮은 중국학 소개 책.

중국의 학자 袁珂가 중국신화를 체계적으

로 정리해 1950년 상해의 商務印書館에서 펴낸 원서를 완역했다.

천지를 개벽한 인물 盤古의 전설, 伏羲와 불의 발명, 태양신 炎帝에서부터 신화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周의 유왕시대 포사의 전설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평이한 문체로 수록돼 있다. 역자는 연세대 중문과 강사.

생각하는 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A5신 / 332면 / 3400원

청소년을 위한 교양철학서.

학생들에게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에 부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철학」 「철학 교사용 지도서」에 이은 시리즈 형식의 책이다.

「철학적으로 생각한다」(정해창), 「시지프스 신화」(카뮈), 「동굴의 비유」(플라톤), 「토인비의 역사관」(드레이) 등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사상을 제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생활에 있어 올바른 판단의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한다.

달려라 호돌이(전8권)

범민협 편

금성출판사 / A4신 / 각권66면 내외 / 각권4000원

올림픽의 마스코트이자 민족의 상징인 호돌이의 모험을 만화로 엮은 책.

호돌이가 태권 소년 태돌이와 함께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며 엮어내는 모험이야기가

慶州南山

寫眞—姜運求 글—金元龍·姜友邦

佛敎文化的寶庫 慶州南山에 산재해 있는 佛蹟을 한눈에 通觀할 수 있도록 체계있게 편집한 울컬러판 사진집

千年을 거슬러 올라간 新羅淨土의 현장 재현

신라인들이 오르던 길을 오르고 있으면 솔나무 옆의 두리뭉실한 바위가 부처가 되고 흐르던 시간이 소리없이 멎어서 신라로 돌아간다. 천년, 부처는 그렇게 앉아 계시고, 천년, 그렇게 서계실 것이다. 부처는 바위, 바위는 부처, 우러러보는 사람도 부처, 모두 피가 통하는 일심일체이다. 바위가 땅에서 솟아나고 바위에서 부처가 솟아난다. 그리고 그뒤에 신라의 佛工이 서있다. 무언의 대화는 그저 감격뿐이다. —金元龍

•B4 冊(25.8×37.6 cm)/호화양장/케이스인/總 208面 울컬러판/값 100,000원

열화당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5 출판단지내 715-1588, 717-0613

흥미진진하게 실려 있다.

「바덴바덴의 합성」(한국·탄생편) 「전함 바사호의 비밀」(스웨덴편) 「환상의 피라미드」(이집트편) 등 전편에 벌어지는 호돌이의 모험담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와 정의감을 심어준다. 곁들여 역대 올림픽에 얽힌 각종 진기록, 술한 에피소드와 뒷얘기를 함께 엮어 독자들에게 흥미를 더해준다.

파인만씨 농담도 정말 잘 하 시네요

리처드 P. 파인만 저 / 김재삼 外 역

안국출판사 / A5신 / 454면 / 4000원

1965년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의 한사람인 파인만씨의 일대기.

액체 헬륨의 신비를 파헤치고, 여자 나체 투우사의 그림을 주문받고, 브라질 삼바 밴드의 프리지데이라 연주자가 되는 등 자신의 경험담을 흥미롭게 엮었다. 그의 지성과 무한한 호기심, 끊임없는 회의, 분노와 같은 당돌성이 독특하게 혼합됨으로써 연달아 일어나는 폭발적이고,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고향으로 가는 길

崔常壽 著

고려원 / A5신 / 346면 / 3300원

한국 민족학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86년도 5·16민족상(학술부문)을 수상한 최상수 씨의 「달라져 가는 세상」에 이은 두번째 수필집.

우리 생활주변에 흩어져 있는 고유 풍물의 유래, 사물의 재인식, 고대문화의 잔존인 민속, 각 지방의 기행, 열두 띠 동물에 얽힌 이야기 등을 엮었다. 「양력과 음력」 「사라진 시장 풍물」 「가면 명칭의 잘못」 등 60여편의 글 속에 잊혀져 가는 우리것에 대한 저자의 강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바다의 세계(2)

「바다의 이야기」편집그룹 편 / 李光再, 孫永壽 譯

電波科學社 / B6 / 182면 / 2000원

최근 국내에서도 '인류의 마지막 개발영역'인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학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일본의 해양학자 20여명이 공동집필한 이 책은, 바다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 빙하시대는 올 것인가? 해수는 왜 짠가? 등의 의문에 친절히 답했으며 플랑크톤, 화살벌레, 물고기의 생태에 관해서도 자세히 살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때문에

마가렛 미드 저 / 姜信杓, 金鳳榮 公譯

文音社 / A5신 / 328면 / 3500원

미국의 저명한 여류인류학자 미드의 인류학적 자서전. 20대에 사모아, 뉴기니아, 발리에서 행했던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연구생활을 서술하면서도, 성장과정, 결혼생활 등 개인 사생활을 솔직담백하게 밝힌 책이다.

어린이, 학생, 부인, 어머니, 할머니로서의 미드의 모습을 생생히 접할 수 있으며, 인류학자 미드가 있기까지 갖가지 경험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석의 ABC

나카무라 히로시 저 / 손영수 역

電波科學社 / B6신 / 222면 / 1500원

자석은 어릴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존재이며, 그 응용범위가 극히 광범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다.

이 책은 자석의 정체를 규명하는 한편, 현재 어떤 자석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장래에는 어떤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는가

등을 풍부한 그림과 함께 쉽게 해설하고 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으나, 가전용품이나 새로운 기계장치에서 풍부히 사용되고 있는 자석의 정체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있어 흥미롭다.

한국의 과학문화재

전상운 저

정음사 / B6 / 164면 / 3000원

천문, 기상, 인쇄술, 금속, 지도제작에 이르기까지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과학유물들을 종합개관한 책. 이제까지 대부분의 문화재관계 책들이 도자기, 공예품, 회화 등에 집중되었음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문화재를 재조명한 「한국의 과학문화재」의 발간은 자못 의의가 크다. '천문과 기상' '인쇄기술' '흙과 불의 과학' '조선시대의 화기' '지리와 지도'로 항목을 나누어, 40여점의 문화재를 원색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존 A. 워커 저 / 鄭鎮國 譯

열화당 / A5신 / 144면 / 2500원

영국의 현역미술비평가인 저자는 오늘날의 전반적 현상을 예술-사회, 예술-언어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그는 이 책에서 팝아트, 기계적 복제의 충격, 후기 모더니즘, 공동체 예술, 기타 대중문화에 근거한 최근작을 분석함으로써, 대중매체시대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며, 예술은 어떤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충실하게 논의하고 있다.

과학의 역사 I·II

스티븐 에프 메이슨 저 / 박성래 역

까지 / A5신 / 666면 / 각권 3500원

과학적 발견이 어떻게 하여, 어떤 까닭으로 한 사회 속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 과

학입문서. 단순한 연대기적 기술이기보다는 과학의 발전과 쇠퇴를 심층적으로 살핀 과학 전반의 通史이다. 이 책은 과학과 역사 및 사회와의 관계를 아울러 규명하고 있어, 과학도 뿐 아니라 인류문명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있게 읽을 수 있다. 모두 4부로 구성, 고대의 과학, 동양과 중세의 과학, 16·17세기의 과학혁명, 18세기의 과학을 흥미롭게 살폈다.

이데올로기와 새 마르크스주의

강성위 저

文學出版社 / A5신 / 256면 / 3500원

새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중반의 사회현상에서 출발한 마르크스사상이 과학화되고 다양화된 오늘날의 현상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데올로기와 새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쉽게 풀이했다.

人類의 先史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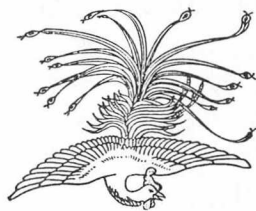
브라이언 페이건 저 / 崔夢龍 譯

을유문화사 / A5신 / 292면 / 3500원

선사시대란 문자에 의한 기록이 있기 전 인류가 이룩한 문화적 진보의 역사다. 이 책은 인류의 기원, 세계에의 거주, 농경생산과 도시문명의 시작 등을 다룸으로써 2백만년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선사시대에 대해 서술적으로 요약했다.

고고학을 이해하는 입문서로서, 인간이 생존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폭넓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만들어 왔는가, 문자문명이 단지 극동과 지중해, 서부 유럽만의 발명물인가 하는 의문에 상세히 답하고 있다.

귀머거리 나무꾼이 들려주는 옛날 옛날 한옛날 이야기



“大人の 나라
君子の 나라
神仙의 나라”

잃어버린 민족의 神話, 민족의 原型을 되찾는다!

한민족太古史·설화소설 대동이

大東夷



● 백두산에 거하며 無爲로 세상 다스린 神人·仙人·真人들의 이야기 ● 중국 古代 神話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이동족이다.
● 대동이족은 신성족(神聖族)이었으며, 남방 중원에 내려가 정사(政事)를 펼쳐 황토족(黃土族)을 교화(教化)했다.

꼬장꼬장한 선비 박문기가 들려주는 우리의 뿌리 이야기

귀머거리 나무꾼으로 자처하며 초야에 묻혀 살고 있는 꼬장꼬장한 선비 농초(龔樵) 박문기는 수많은 史書와 經書, 옛 문헌을 섭렵하면서 밝은 눈으로 태고적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정신을 발굴하여 잃어버린 民族神話를 복원하였으니 '설화소설 大東夷'는 바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우리의 뿌리 이야기이다.

정신세계사 733-3135-7